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와 번역 현황 고찰

이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1972년에 한국과 터키 간에 ‘문화협력’ 협정이 체결되고, 같은 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터키어과가, 1989에는 양카라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대학 차원에서 양국 학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학과들은 양국의 학술 분야 및 민간 교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학 교육도 이 연구 분야의 한 줄기다. 현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단일 작가의 작품이나 단일 주제 및 소재가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편파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차세대 연구자들을 위해 터키문학사 관련 저서, 혹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집필한 터키문학사의 번역 발행도 요구된다. 터키문학이 한국문단과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은 오르한 파묵의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터키문학 번역이 활성화되면서 터키문학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술지에 이 작가들의 작가 세계나 작품 세계를 다루며 학술 연구로 확장하고 있다. 번역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터키어가 확산되고 연구되는 저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계 문학의 중심부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터키문학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며, 학문 후속 세대 양성, 학제 간 연구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터키문학, 번역 문학, 한·터 관계, 문화교류

I. 머리말

한국과 터키는 지리적, 종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 이래 활발한 교류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양국이 과거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는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민족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정론은 없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하여 구석기 시대 전후 몽골과 만주 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사기』의 ‘흉노전’에는 한민족의 조상(고조선 건국에 참여한 부족)인 예족과 맥족(예맥족)의 기록이 있다. 예맥족은 만주 몽골계, 튀르크계를 포

합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다. 튀르크¹족은 알타이 산맥의 남동부 스텝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한민족과 튀르크족은 공통으로 조상을 갖고 한민족의 뿌리는 동쪽으로, 튀르크족의 무리는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사시대 이전부터 맺어온 튀르크족과 한민족 간의 전통적 유대 관계는 중국의 당조시대 이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통일신라 이후 한반도는 문화적·정치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중국을 넘어서는 대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튀르크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튀르크족과 한민족의 관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이희철, 2012).

과거 같은 지역에서 발원한 두 민족은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터키 정부가 1950년 7월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에 기인한 유엔군의 참전은 한국과 교류가 적거나 없었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 교류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나 터키군의 한국전 참전²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이 서로 친밀감과 호의를 갖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터키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57년에 한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같은 해 터키에 한국 상주 공관을 개설했다. 이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한국전쟁 이후 얼마나 가깝게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터키는 정서적으로 우리와는 혈맹 관계이며,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이난아, 2010b).

이후 양국은 서로를 알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그다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양국의 문화적 유사함 등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1972년에 양국 간 ‘문화협력’ 협정이 체결된 후, 1972년 12월 26일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터키어과가 설립되어 1973년부터 교육을 시작했

¹ 국내에서 ‘튀르크’와 ‘터키’라는 단어가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 ‘튀르크’는 알타이산맥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족 이름이며, ‘터키’는 1923년에 설립된 이후 터키공화국을 줄여서 쓰는 나라명이다.

² 한국전쟁 당시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 터키 수상은 유엔 안보리의 한국전 지원 요청을 즉각 수락하고, 6월 29일 전투병력 파병을 통보했다. 한국전의 긴박성을 감안해 1950년 7월 18일 군 수뇌부를 포함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터키 정부는 1개 여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7월 25일 국회에서 승인되었다(백상기, 2007: 30).

다. 반면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보다 늦은 1989년 2월 앙카라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양 대학에 설립된 터키어과와 한국어문학과는 양국의 학술 분야 및 민간 교류 증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대학 차원에서 양국 학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문학 교육도 이 연구 분야의 한 줄기다. 한국에서의 터키문학 연구는 터키에서 터키문학을 전공한 한국인들에 의해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학문 분야의 연구 추이를 되짚어보고, 현황을 진단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 잡고, 미래의 향방을 제시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아울러 최근 유럽에 편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터키의 특수한 과거사와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융화되고 교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한 문학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못지않게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터키문학이 한국에 얼마나 알려져 있고, 번역 되었으며 연구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는 앞으로 터키문학이 한국에 얼마나 더 지속적이고도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하는 학제적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관점으로 볼 때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터키문학은 하나의 주요한 롤 모델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여러모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터키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한국에서 터키문학이 여전히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간략하게나마 터키문학사에 대해 소개한다.

II. 터키문학사 개괄

터키 역사가 지구상에 터키인이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듯이 터키문학사도 터키

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부터 시작된다. 터키문학의 기원은 터키인이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고대 시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방대한 터키문학사와 그 기원까지 연구하고 한국에 소개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와 체계적인 번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면에서는 근대와 최근의 터키문학으로 한정지어 언급하고자 한다.

터키문학계는 터키문학사를 보통 이슬람 수용 이전의 터키문학, 이슬람 수용 이후의 터키문학 그리고 서구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터키문학으로 대별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슬람 수용 이전의 터키문학은 터키 고유의 감성이 내포되어 있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뉜다. 이슬람 수용 후 전개되는 터키문학의 발단은 7세기 후반 우마이야 왕조(660~750) 때 이슬람과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10세기 전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슬람교를 수용함으로써 전개된다.

이슬람의 수용과 함께 이슬람 문명은 단시일에 터키 내에 확산되었고, 터키 사회는 이슬람 종교법에 의거하여구조적인 변화를 맞았다. 이는 문학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학 작품 형태, 언어 그리고 소재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터키 지식인들이 이슬람적 구조의 아랍 및 이란문학의 영향, 즉 디완문학(Divan Edebiyatı)³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서민들 중에서도 작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이슬람 수용 이전의 터키 고유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지시켰다. 이로써 이 시기에는 디완문학과 서민문학이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아나톨리아반도(현재 터키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 쪽 반도)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 디완문학은 그 구조상에서 약간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 이외에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진보적인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오스만제국을 통치했던 파디샤들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발전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연히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서구화를 지향하는 시기인

³ 디완문학을 귀족 문학, 상류층 문학 또는 터키 고전문학이라고 표현하며, 그 당시에 쓴 시들을 「디완」이라는 책에 집성했기 때문에 당시 쓰여진 작품들을 통칭하여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디완문학이라고 칭한다.

탄지마트(Tanzimat)⁴ 시기까지 디완문학의 영향은 계속되었다. 동양 문화적인 터키 생활 방식에 서구 문화적인 생활이 접목되는 기간인 탄지마트 시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전개된 서구 영향 아래의 터키문학은 터키 현대문학의 기초가 되었다(이난아, 2006c).

19세기 중반, 즉 1860년 이후 터키문학은 프랑스문학과 활발하게 접촉함으로써 서구의 영향을 받았다. ‘탄지마트 칙령’은 오스만제국이 가지고 있던 중세적 관념들과 보수적 사상들이 근세 서양의 관념과 사상에 굴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칙령으로 인해 유럽을 모델로 한 정치적, 법적, 문화적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사상의 변화는 그 중 가장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파디샤를 위시하여 서구화가 제국을 위해 필연적이라고 믿었던 정부 지도층들은 서구화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과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옛 사고방식과 행동들을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신(新), 구(舊)의 사상과 행동들을 일정 기간 함께 지속시켜 무슬림 국민으로 하여금 서구 문명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이난아, 1997).

신·구 공존의 상황은 터키문학에서도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이슬람적 구조의 모든 특성을 내포하고 있던 터키문학도 서구화 물결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신(新)문화 운동에서 터키 내의 서구화 운동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적응시키는 일에 터키문학인들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젊은 시인들과 작가들은 서구식 사고방식과 서구 문화를 터키 내에 전달하는 전파자 역할은 물론 보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렇게 해서 아랍과 이란 문학의 영향하에서 발전한 터키 고전문학의 시기는 막을 내렸다(이난아, 1997).

오스만제국에 서구의 실증주의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가 문을 열고 외국어 학습자들이 양성되자 이에 따라 오스만제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도 서서히

⁴ 탄지마트는 단어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정비’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터키를 모든 방면에서 서구화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1839년 11월 3일 국가에서 선포한 탄지마트 칙령으로 인해 터키에서는 서구를 모델로 한 정치, 법, 문화 부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뀌기 시작했다. 신문이 발행되고, 서양 언어 특히 프랑스어로 된 작품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고전문문의 형식과 내용 면에 변화가 생겼고 소설, 연극, 비평, 단편소설 같은 새로운 문학 장르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초기 터키 소설가들은 서양 작품을 번역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설들이 터키어로 번역되면서 당시 작가들은 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작품들을 모방한 작품들을 터키 독자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구 소설을 번역, 모방 그리고 본보기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터키 소설은 서구의 소설 서술 기법을 적용, 본질과 형태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거듭했다.

1923년 터키공화국 선포 때까지 터키 현대 소설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소설가들이 양성되었다. 이들은 서양 소설 기법에 근접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붕괴와 전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의 상황에 맞서 민족문학을 발달시켰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언어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야쿱 카드리 카라오스만 오울루(Yakup Kadri Karaosmanoğlu, 1889~1974), 할리데 에디프 아드와르(Halide Edip Adıvar, 1884~1964), 레샤트 누리 귄테킨(Reşat Nuri Güntekin, 1889~1956)과 같은 소설가들은 이 시기에 중요한 작품들을 남겼다.

한편 탄지마트 시기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터키문학의 뿌리 깊은 전통인 운문 문학 장르는 그 맥이 연연히 이어져 내려와 꾸준히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서양의 소설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터키 문단은 이를 뒤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1970년대 전에 발표된 심리소설, 동서양 문제를 고심하는 소설, 이데올로기를 다룬 소설 등은 여전히 19세기 서양 소설의 구조와 기법을 고수했으며, 이를 뛰어 넘는 터키 작가들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Ahmet Hamdi Tanpınar, 1901~1962), 압뮐학 쉬나시 히사르(Abdülhak Şinasi Hisar, 1883~1963) 같은 몇몇 소설가들 이외에는 프루스트(Marcel Proust), 카프카(Franz Kafka),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앙드레 지드(Andre Gide),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같은 아방가르드 소설가들의 모더니즘 기법의 소설과 이들의 새로운 기법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유스프 아틀간(Yusuf Atılgan, 1921~1989), 오우즈 아타이(Oğuz Atay,

1934~1977), 페리트 에드귀(Ferit Edgü, 1936~) 같은 작가들은 모더니스트 소설을, 오르한 파묵(Orhan Pamuk, 1952~), 하산 알리 톱타시(Hasan Ali Toptaş, 1958~), 이흐산 옥타이 아나르(İhsan Oktay Anar, 1960~), 무라탄 문간(Murathan Mungan, 1955~) 같은 작가들은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한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날 터키 현대문학의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거론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탄지마트부터 시작하여 터키 소설의 주요한 소재이자 문제인 동·서양 딜레마가 역사적 발전에 따른 형태적 변화만 있었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지마트 이후 터키 소설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엘리트들의 도구로서 ‘어떻게’ 서술하느냐보다는 ‘무엇을’ 서술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즉, 소설이 사회에 정의를 전달하려고 하며, 교육적이며, 교훈적인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르로서 그 존재가치를 삼고 있는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더 고유한 분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터키 시는 소설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항상 서구 시를 추적하며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 시 형태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과거 문학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면은 터키문학을 현시대의 경제, 정치 발달과 동떨어진 것으로, 특히 소통과 정보 면에서의 급속한 변화와 발달을 보이는 지구화 현상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호 문화 간의 발전 양상은 단일 문화의 중요성보다는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는 모든 세계 문학에서 그러하듯이 터키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발전 과정을 거치며 터키문학은 세계 문학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까지 배출하게 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터키문학은 사적이며, 더 자유로운 표현법을 찾는 다양한 모색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서양 문제를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서 보편성을 찾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묵, 환상적이며 신비로운 시각으로 터키 역사를 바라보는 이흐산 옥타이 아나르, 서양 역시 생소하지 않은 신비주의 경향을 소설에 반영한 엘리프 샤팍(Elif Şafak, 1971~) 같은 소설가들이 이러한 모색을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작가들도 많다.

III.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 동향’을 범위로 하여, 터키학 및 타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에 터키문학이 소개된 시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에 발행된 터키문학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포함될 것이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www.riss.kr>)에서 ‘터키’, ‘튀르크’, ‘터키문학’, ‘튀르크 문학’으로 검색하여 터키문학과 관련된 논문을 선별해 분류·정리했다. 또한 터키문학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특정한 학술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편 터키문학 연구자들이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문예지나 지면에 소개된 것들은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특집호나 지면이 요구하는 기획물 형태의 글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터키 연구자에 의해 한국에 터키문학이 소개된 것은 1977년에 정기 간행물인 『한국문학』에 게재된 “보드룸에 문헌 자유민-터어키의 작가 할리 카르나스 발록 츠스”에 관한 글이 처음이다.⁵ 이 글은 물론 전문 학술지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터키학 연구자에 의해 터키문학에 대한 글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에 출간된 조동일의 저서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의 “서사시와 소설, 터키의 사례”라는 장은 서사시에서 소설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터키문학의 사례를 들어 한국문학과 비교한 글이다. 한국문학 연구자가 쓴 글이지만 한국문학의 갈래를 다루면서 터키 역사와 함께 터키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들과 작가들을 언급하고 소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⁵ 이 글의 필자는 터키 정치학 전공자이며, 당시 터키문학을 전공한 한국인이 없었던 이유로 기획물의 한 편으로 터키문학 소개를 요청받아 부득이하게 썼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두 글 중 전자는 최초로 터키학 연구자에 의해 터키문학이 한국에 소개된 글이며, 후자는 비터키문학 연구자에 의해 터키문학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다.

IV.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 발전 추이

1. 터키문학 연구 경향 및 쟁점

이 장에서는 터키문학의 장르별 연구 경향, 연구 영역별 양상, 주제별 연구 경향, 석·박사 논문의 발표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터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키문학 관련 논문들이 학술지에 발표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터키문학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2편이며, 한국문학과 터키문학을 비교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은 1편이다. 단행본의 경우는 2편이 출간되어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터키문학 관련 논문 수는 총 45편이며, 이 중 고전문학 분야 논문은 6편,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은 39편이다. 논문 내에 터키문학 일부를 다룬 연구들은 제외되었다.

국내에서 발표된 터키문학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양민지의 “『현인 코르크트의 서(*Dede Korkut Kitabı*)』 분석: 서사구조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2009)와 이선미의 “아지즈 네신의 풍자성 연구: 『생사불명 야샤르(*Yaşar, Ne Yaşar Ne Yaşamaz*)』와 『쥐뿍(*Zübük*)』을 중심으로”(2010)다. 첫 번째 논문은 터키 고전문학 작품 연구이며, 두 번째 논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키 현대 풍자작가의 소설 두 편에 대한 연구다. 한·터 비교문학 박사학위 논문은 터키인 연구자 하티제 코로올루(*Hatice Köroğlu*)가 한국어로 집필한 “나해석과 파트마 알리에 하늘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근대적 자아”다.

터키문학 관련 단행본으로는 이난아의 『터키문학의 이해』, 『오르한 파묵-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간되었다. 『터키문학의 이해』는 터키문학사, 터키 현대시사,

표 1 터키문학 연구 논문 주제별 유형

	설화 관련	한국전쟁 관련	단일 작가 관련 (오르한 파묵)	단일작가 관련 (야샤르 케말)
편수	6	7	15*	5*

*표는 두 작가가 동시에 다루어진 논문인 “주변부에서 중심으로-터키문학의 재인식”도 각각 포함된 수치다.

터키 민족 문학 등 다양한 글이 실린 연구서이며, 『오르한 파묵-변방에서 중심으로』는 변방의 작가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묵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 연구서다.

터키문학 관련 논문들 중 현대문학 분야 논문들은 소설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시 분야 논문은 한 편에 불과하다. 터키문학 관련 주요 연구 분야는 작가 연구와 작품 연구로 크게 분류할 수 있지만, 작가와 작품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며, 한·터 문학 비교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보았을 때 크게 부각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튀르크 설화를 연구 주제로 한 논문이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 둘째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터키문학이 역시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가 연구 및 작품 연구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연구자의 관심 분야가 뚜렷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동시에, 한 분야 혹은 한 작가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터키 작가들의 작품들을 연구하여 한국 문단의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물론 고무적이지만 주제별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결점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는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터키문학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이 축적된 연구는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6년 터키문학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오르한 파묵의 작품들과 관련된 것이며, 작가와 관련 단행본 역시 출간되었다. 또한 과거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지명되었던 터키 소설가 야샤르 케말(Yaşar Kemal, 1923~)의 작품 연구도 종종 눈에 띈다. 이외에 세계적인 풍자작가인 아지즈

표 2 타 전공자 터키문학 관련 발표 논문 편수

아랍문학 전공자	터키어 전공자	한국문학 전공자	한·터 비교문학자	합계
2	2	1	1	6

네신(Aziz Nesin, 1915~1995)과 관련하여 국내 석사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들이 있다. 위 세 작가의 공통점은 그 문학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어를 포함해 세계 여러 언어로 그들의 작품이 다수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튀르크 설화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의 연구자는 터키어 전공자이지만 전공 분야를 넓혀 문학 방면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전시키고 있다. 이는 전공 분야와 실제로 발표한 논문 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터키문학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례로 아랍문학 전공자들이 아랍문학을 다루면서 터키문학도 포함하여 집필한 사례를 볼 수 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터키어 전공자들이 연구 지평을 넓혀 터키문학 관련 논문들을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 전공자가 터키문학 관련 학술 논문 혹은 학위논문을 쓴 수치는 표 2와 같다. 이 수치에서 순수 학술논문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었다.

서론에서 터키의 한국전 참전이 양국 우호 관계의 근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학의 역할은 현실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인간 정신의 양상이며, 그 시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문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한적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작품은 그 시대 지성인의 현실 인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터키 작가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련의 다른 나라와는 변별되게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전쟁을 상세히 반영했다는 점은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터키의 전통을 보자면 그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당사자인 한국에게는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을 그것도 제3자인 외국인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국전쟁을 가장 많이 다룬 문학 장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시인들은 시의 소재나 내용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한국전쟁 중 중요한 격전, 터키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 및 정보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희곡 장르에서는 터키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당시의 감상과 추억을 담은 작품

들, 터키군의 용맹성, 애국심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나 희곡 이외에도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장·단편 소설들도 수없이 많다. 특히 당시 신문에는 단편소설들이 많이 게재되었고, 장편 소설들도 연재되었다.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 분야에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일례로 세뫼 베이스 외 르벡의 소설 『벼이삭 푸르러질 때』, 아틸라 일한의 소설 『회상』 등)을 분석한 논문의 편수가 많은 것은 한국전쟁이 터키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다룬 문학작품이 많아 그만큼 연구 텍스트도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나 작품들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터키 문학사를 관통하는 저서나 포괄적인 단행본은 출간되지 않고 있다. 차세대 연구자들을 위해 터키문학사 관련 저서, 혹은 권위 있는 연구자가 집필한 터키문학사의 번역도 그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터키문학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서들을 선별하여 번역하는 작업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단일 작가의 작품이나 단일 주제 및 소재가 연구의 주종을 이루는 편파성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 번역문학

한 문화가 그 지역성을 넘어 국제성을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그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세계적이고 인류적인 문화적 가치 또한 확보하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즉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가 인류적이고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문학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예술 작품에 대해 개방됨으로써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조화와 다채로운 교감을 조성하도록 도모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번역 작품과 예술 작품의 상호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은 역사 이래 다른 세계와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어 최근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 분야다. 번역 작품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척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로써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 획일화된 정신과 감성 이외에 다른 사고방식과 산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번역 작품인 것이다. 한 국가가 번역을 등한시하고 체계적인 번역 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세계 문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번역은 자국 언어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 경험하지 못했던 감성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자국 언어의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고, 이전에 없었던 서술 방식으로 유도해 자국의 문화와 모국어를 풍부하게 만든다. 즉, 번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문화는 확장되고, 언어는 풍부하게 되고, 갈수록 새로운 가능성들로 진화하게 된다 (이난아, 2011b).

터키문학이 한국문단과 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은 오르한 파묵의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이다. 이는 어쩌면 한국 작가들 중 현재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와는 문학적 변방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터키문학이 세계 문학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가능성 혹은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문학적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된 것은 우리 문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기에 수상자 배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오르한 파묵은 과거에 자주 터키 작가로서 세계 문학, 그의 말을 빌자면 서양 문학, 또는 세계 문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터키 현실에 대한 작가로서의 고뇌를 설파한 적이 있다. 이는 비단 파묵만이 가졌던 생각은 아닐 것이며, 한국문학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를 토로하고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6년 이후(터키문학 번역 편수 총 44편 중 2006년 이전에 번역된 편수는 18편이다) 국내에 터키문학이 대거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벨문학상이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 문학이 해외로 소개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터키문학을 다루는 이유는 터키문학이 다른 아

시아 국가(중국과 일본 제외)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역되었으며, 번역서가 출간됨과 동시에 다수의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내 터키문학의 연구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아시아 지역연구 중 터키문학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전세계 23개국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970년대 초부터 2011년 5월까지 국내에 번역 출간된 아랍 문학이 54편 정도임을 감안할 때,⁶ 터키문학 번역 현황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터키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자들 중 80% 정도가 - 총 44편 중 33편 - 터키학 전공자이며, 이들이 연구, 강의, 번역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터키문학 목록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4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는 오르한 파묵과 아지즈 네신이며 야샤르 케말, 이호산 옥타이 아나르, 아흐멧 알탄, 엘리프 샤팍, 세빔 악 등의 작품들도 2편 이상 번역되었다. 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터키문학 연구자들은 다양한 학술지에 이 작가들의 작가 세계나 작품 세계를 다루고 있다. 이는 번역이 활성화되면서 작가와 작품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또한 운문 번역(『입술 없는 꽃』, 『이스탄불을 듣는다』)은 저조한 반면, 산문 장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러 가지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이 있겠지만 비단 한국만이 아닌 세계 출판 시장의 보편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 3의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첫 작품이 야샤르 케말의 대표작 『메메드』임에도 불구하고 뒤를 이어 번역된 작품들을 보면 일정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야샤르 케말은 1980년대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많은 작가로 자주 언급되었던 터키의 대표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 출판사들은 독자들의 관심을 가늠하면서 그 시기에 어떤 특정 작가가 이슈가 되거나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관심을 끌었

⁶ 더 자세한 사항은 김능우(2011: 27-59)를 참조.

표 3 한국어로 번역된 터키문학 작품 목록

	작품명	작가	국내 출간년도	출판사	번역가
1	메메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야샤르 케말	1982	주우사	홍진주
2	비와 토지	네자티 주말르	1996	한국외대 출판부	김대성
3	위험한 동화	아흐멧 알탄	1998 2004	좋은날 황매	이난아
4	새로운 인생	오르한 파묵	1999	민음사	이난아
5	살모사의 눈부심	철튀 리반엘리	2002	문학세상	이난아
6	터키민담	미상	2003	황금가지	이난아
7	행복한 바보	미상	2003	큰 나무	이양준
8	삶이 주는 선물	쥬네이드 수아비	2003	민 미디어	이양준
9	입술 없는 꽃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메블라나 잘라루 딘 루미	2003	문학수첩	이성렬
10	제이넵의 비밀편지	아지즈 네신	2004	푸른숲	이난아
11	내 이름은 빨강	오르한 파묵	2004	민음사	이난아
12	감정의 모험	아흐멧 알탄	2004	황매	이난아
13	나스레딘 호자	미상	2005	인터 미디어	신양섭
14	당나귀는 당나귀답게	아지즈 네신	2005	푸른숲	이난아
15	파디샤의 여섯 번째 선물	아흐멧 위밋	2005	푸른숲	이난아
16	눈	오르한 파묵	2005	민음사	이난아
17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	야샤르 케말	2005	문학과 지성	오은경
18	바닐라 향기 나는 편지	세빔 악	2005	푸른숲	이난아
19	하얀성	오르한 파묵	2006	문학동네	이난아
20	생사불명 야샤르	아지즈 네신	2007	푸른숲	이난아
21	검은 책	오르한 파묵	2007	민음사	이난아
22	안개 낀 대륙의 아틀라스	이흐산 옥타이 아나르	2007	문학동네	이난아
23	스타를 사랑한 거위	세빔 악	2007	푸른숲	이난아
24	툴슈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지즈 네신	2007	푸른숲	이난아

표 3 (계속)

	작품명	작가	국내 출간년도	출판사	번역가
25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오르한 파묵	2008	민음사	이난아
26	개가 남긴 한 마디	아지즈 네신	2008	푸른숲	이난아
27	그림자 없는 사람들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하산 알리 톱타시	2009	웅진	김라함
28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지즈 네신	2009	살림	이난아
29	왜들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아지즈 네신	2009	살림	이난아
30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 없다	아지즈 네신	2009	푸른숲	이난아
31	에프라시암의 이야기	이흐산 옥타이 아나르	2009	문학동네	이난아
32	이스탄불의 사생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엘리프 샤팍	2009	생각의 나무	한은경
33	순수 박물관	오르한 파묵	2010	민음사	이난아
34	40가지 사랑의 법칙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엘리프 샤팍	2010	생각의 나무	한은경
35	바람부족의 연대기	야샤르 케말	2010	실천문학사	오은경
36	이스탄불을 듣는다	오르한 웰리 카누	2011	문학과 지성	술탄 페라흐 악프나르
37	이난나	무라트 툰젤	2011	아시아	오은경
38	내 이름은 피라예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자난 탄	2011	라이프맵	김현수
39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	제브데트 클르치	2011	푸른 숲	이난아
40	일단 웃고나서 혁명	아지즈 네신	2011	푸른숲	이난아
41	고요한 집	오르한 파묵	2012	민음사	이난아
42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	오르한 파묵	2012	민음사	이난아
43	소설과 소설가	오르한 파묵	2012	민음사	이난아
44	이스탄불은 한 편의 동화였다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마리오 레비	2013	산수야	박현용

표 4 작가별 번역 편수

작가 이름	오르한 파묵	아지즈 네신	야샤르 케말	엘리프 샤팍	이흐산 옥타이	아흐멧 알탄	세빔 악	기타
번역 편수	9	9	3	2	2	2	2	15

을 경우 그 작품들을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목록에서 7편이라는 적지 않은 작품이 터키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영어, 독일어 등 다른 외국어를 통한 이중 번역으로 소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출판계가 이중 번역을 꺼려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터키어뿐만 아니라 터키 문화, 터키문학 전공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터키문학사의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만 하는 고전 터키 문학작품들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이 위의 목록에 나온 작품들을 읽는 것만으로 터키문학에 대해 전반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터키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터키 시와 단편작품들 역시 소개되어야 하며, 터키 소설 선구자들의 작품들도 선별하여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터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들이 두서없고 시대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 출판사들의 선호도 문제도 있겠지만 터키문학을 질적, 양적으로 올바르게 번역할 능력을 갖춘 번역가들의 수가 적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국가는 다른 나라와 교류나 소통 없이 홀로 존재하며 생존할 수 없다. 번역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자국에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최근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 분야다. 문화적 국제성 확립은 한 문화의 다른 문화와 예술 작품에 대한 개방으로 실현되며, 이를 조성하도록 도모해주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예술 및 번역 작품의 상호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는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번역 활동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이난아, 2011b). 이러한 점에서 인류 문화가 이룩한 정신세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의 상호발전과 상호공유의 정신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지극히 필요하고 중요한 태도이자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간 상호교류가 증대 및 확산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만남 역시 부각되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 역사 및 사회 제반의 문제를 이해하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타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 문화 이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및 정신세계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진정성 있는 교류와 융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난아, 2013a). 각 나라 그리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매체들 중 하나가 문학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문 제 분야에 대한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을 하려면 기존에 수행된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터키문학사 개괄과 함께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터키문학 연구의 장르별 연구 경향, 연구 영역별 양상, 주제별 연구 경향, 석·박사 논문의 발표 양상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터키문학 작품을 살피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현재까지 양국 연구자들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업적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양국 교류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2년에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양한 문화 방면에서 양국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 문학 간의 교류는 여전히 가장 미흡한 분야로 남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소수에 불과한 터키문학 연구자들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수는 다른 아시아 지역 문학 연구와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터키문학사의 흐름을 가늠하지 않고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 작가들, 한·터 공동의 역사(한국전쟁)에 기반한 연구에 집중했다는 점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석·박사 논문과 연계된 경험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연구 내용 또한 작가와 작품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났으며, 고전문학 연구보다는 현대문학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비해볼 수 있는 터키문학 특유의 상징성과 문화적 혼용이 다양한 문화론과 문학 이론을 동반한 여러 장르와 창조적 관점의 연구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이 한 나라의 문화적, 학문적 수준을 알려주는 주요한 척도이며, 세계의 문화 예술과 나란히 호흡하며 그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준인 바,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한국어로 번역된 터키문학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집중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교류가 빈번했던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권 문학에 비해 터키문학 번역 편수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한국문학의 발전가능성의 모델로 터키문학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문단은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여부를 접치고 있다. 노벨문학상 발표가 있는 매년 10월이 되면 언론은 앞 다투어 노벨문학상 수상 추측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으며 국민들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기대한다. 이 연구와 접목해서 언급하자면, 우리보다 먼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배출한 터키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러한 기대는 무의미한 열정과 성과 없는 결과론에 집착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20세기에 변방의 중남미 문학이 세계 문학의 주류로 부상하고 혁신적인 붐을 일으킨 상황을 주목한다면, 터키문학을 비롯한 이슬람권 문학이 21세기 세계 문학의 주류로 발돋움하여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고 발전하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터키의 사례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문학계에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학문적 단초를 재정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계 문학의 중심부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터키문학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며, 학문 후속세대 양성, 터키문학사 개설서 등 단행본 출간, 학제 간 연구 역시 서둘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 연구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중간보고이자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13년 12월 17일 | 심사일: 2013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김능우. 2011. “국내 중등문학의 번역 상황 고찰: 아랍 문학을 중심으로, 1970년대 초부터 2011년 5월까지.” 『중등연구』 30권 2호, 27-59.
- 김효정. 2002. “튀르크 문학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으로서의 이리 모티브 연구.” 『한국중등학회논총』 23권 2호, 85-102.
- _____. 2006.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한국중등학회논총』 26권 2호, 123-146.
- _____. 2007. “튀르크족의 기록에 나타난 “텡그리(Tengri)”의 의미.” 『한국중등학회논총』 28권 1호, 387-406.
- _____. 2008. “튀르크 설화 속의 종족기원 모티브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0권 3호, 1-32.
- _____. 2010a. “튀르크 설화에 나타난 이슬람의 영향.” 『한국중등학회논총』 30권 3호, 133-163.
- _____. 2010b. “튀르크 설화 속의 동물변신 모티프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2권 4호, 79-105.
- 백상기. 2007. 『터키 사람들과 반세기』. 삶과 꿈.
- 서재만. 1977. 『한국문학』 41. 한국문학사.
- _____. 1998.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총서 14,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주철. 2011. “한국전쟁 관련 외국문학 작품의 의미와 그 이면: 폴란드, 터키, 콜롬비아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8집, 165-189.
- 양민지. 2009. “『현인 코르크트의 서(Dede Korkut Kitabı)』 분석: 서사구조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어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연구석. 1988. “밀레니엄 특집: 『20세기 중동을 움직인 인물 50선(選)』; 문학, 예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터키의 대표적 작가: 야샤르 케말(Yaşar Kemal, 터키, 1922~)”. 『중등연구』 17권 2호, 443-446.
- _____. 2002a. “전통과 근대의 억압적 여성성 형성: 한국과 터키 소설을 중심으로.” 『정

- 신문화연구』 25권 2호, 83-105.
- _____. 2002b. “근대 소설과 제 3세계 신여성: 한국과 터키 신여성의 분열된 근대적 성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28집, 101-120.
- _____. 2003a. “파병과 전쟁문학-터키의 한국전쟁 파병과 한국전쟁문학 형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2권, 303-326.
- _____. 2003b. “한국전쟁과 터키 전쟁 시 연구.” 『국제어문』 28집, 177-207.
- _____. 2003c. “터키와 한국전쟁문학.” 『정신문화연구』 26권 1호, 205-223.
- _____. 2003d. “민족담론과의 결별, 여성되기: 아달렛 아아오올루의 소설과 터키 페미니즘.” 『여성이론』 9호, 127-147.
- _____. 2005. “터키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참전군의 전쟁 인식과 성매매 여성: 세닷 베이스 외르넥(Sedat Veyis Örneke)의 『벼이삭 푸르러질 때(Pirinçler Yeserecek)』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36집, 167-187.
- _____. 2006a. “전쟁, 국가, 남성 히스테리-아틸라 일한(Attila İlhan)의 『희상(Yaraya Tuz Basmak)』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39권, 123-142.
- _____. 2006b. “무슬림 유엔 참전군이 본 한국전쟁: 터키 한국 전쟁 문학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8집, 287-306.
- _____. 2007. “한국과 터키 소설 속의 신여성, 근대성, 민족성.” 『한민족문화연구』 20집, 89-116.
- _____. 2008a. “야샤르 케말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를 통해 본 명예살인의 메커니즘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8권 2호, 195-214.
- _____. 2008b. “야샤르 케말의 『빈보아신화(Binboğa Efsanesi)』에 나타난 노마디즘 연구.” 『중동연구』 27권 2호, 125-146.
- 이난아. 1997. “터키 근대 문학의 태동 - 탄지마트 문학.” 『한국중동학회논총』 18권 1호, 361-385.
- _____. 1999a.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와 「새로운 인생」 읽기.” 『한국중동학회논총』 20권 1호, 183-198.
- _____. 1999b. “터키문학에 나타난 여성문제: 아이셀 외즈아르근의 소설 「젊은 여자와 죽음」을 중심으로.” 『한터학회논총』 2호, 45-62.
- _____. 2000a. “작가 페야미 사파(Peyami Safa)의 사상서에 나타난 동·서양 문제.” 『한터학회논총』 3호, 7-23.
- _____. 2000b. “『하얀 성』에 나타난 터키의 정체성 문제: 동·서양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7호, 183-203.

- _____. 2001. "East-West Issues in the Payami Safa'a Novels." 『한티학회논총』 4호, 77-92.
- _____. 2002a. "현대인의 삶의 황폐, 사랑 혹은 성: 터키소설 『위험한 동화』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호, 329-346.
- _____. 2002b. "터키민족문학의 발달과 터키민족의 정체성 모색." 『지중해지역연구』 4권 2호, 143-167.
- _____. 2003a. "인간의 권력의지와 폭력성 혹은 광기: 소설 『살모사의 눈부심』에 등장하는 권력형 인물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9호, 163-186.
- _____. 2003b. "야샤르 케말과 인간 존엄성 확인으로서의 반항: 소설 『메메드』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14호, 163-182.
- _____. 2004. "터키문학에 나타난 술탄의 하렘: 소설 『살모사의 눈부심』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6권 2호, 257-281.
- _____. 2005a. "『내 이름은 빨강』에 나타난 동·서양 갈등: 동·서양 회화(繪畵)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5-1집, 227-245.
- _____. 2005b. "터키 여성주의 작가 할리데 에딕의 생애와 작품연구-『세비에 탈립』과 『창녀를 처라』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26권 1호, 249-271.
- _____. 2005c. "오르한 파묵의 소설, 소설관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이해." 『중동연구』 24권 2호, 285-311.
- _____. 2006a. "터키문학에 나타난 여성문제의 역사적 고찰: 터키 근·현대 문학사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8권 1호, 277-300.
- _____. 2006b. "오르한 파묵의 소설 『눈』에 나타난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갈등연구: 히잡 착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27권 1호, 309-334.
- _____. 2006c. 『터키문학의 이해』. 서울: 월인.
- _____. 2007. "터키문학에 나타난 이슬람-기독교 문화 갈등 및 충돌 연구: 오르한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의 등장인물 "올리브"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25권 2호, 375-408.
- _____. 2008a. "도시와 문학: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2호, 201-227.
- _____. 2008b. "오르한 파묵의 소설 『눈』의 등장인물 대립구조 연구: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27권 1호, 101-125.
- _____. 2009. "주변부에서 중심으로-터키문학의 재인식." 『세계문학비교연구』, 95-126.
- _____. 2010a. "정체성 고뇌와 분신 모티프-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과 『검은 책』을 중심

- 으로.” 『중동연구』 29권 1호, 121-150.
- _____. 2010b. “한국전쟁을 다룬 터키 영화-『북극성』과 『한국의 터키 총검』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55-56.
- _____. 2010c.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회화의 재현: 오르한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9권 2호, 151-186.
- _____. 2011a. “이슬람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터키 현대문학의 『천일야화』 서사 기법 계승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3권 1호, 157-183.
- _____. 2011b. “오르한 파묵 번역과정의 문제점과 대응사례.” 『통번역학연구』 14권 2호, 229~249.
- _____. 2012. “오르한 파묵의 작품에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2권 1호, 179-207.
- _____. 2013a. “터키 문화 코드에 관한 소고.” 『글로벌문화콘텐츠』 10호, 22.
- _____. 2013b. “문학 공간의 문화콘텐츠화: 허구에서 실제로: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31권 2호, 205-228.
- _____. 2013c. 『오르한 파묵, 변방에서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 이선미. 2010. “아지즈 네신의 풍자성 연구: 『생사불명 야샤르(Yaşar, Ne Yaşar Ne Yaşamaz)』와 『쥐뿍(Zübük)』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어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희철. 2012. 『문명의 교차로, 터키의 오늘』.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전완경. 2005. “북아프리카와 터키 여성문학 연구.” *Mediterranean Review*. 7권 2호, 283-321.
- 조동일. 1992.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서울: 집문당.
- 하병주. 2003. “중동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 『외대논총』 27호, 183-201.
- 하티제 괴로올루. 2010. “서구화 이후 터키와 한국의 여성 문제 연구: 파트마 알리에 하늬와 나혜석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집, 95-121.
- 하티제 괴로올루. 2010. “나혜석과 파트마 알리에 하늬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근대적 자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Turkish Literature: Research Trends and Translations in Korea

Nan A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urkish literature in Korea.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general history of Turkish literature, the trends of research in each genre of Turkish literature in Korea heretofore, aspects of research areas, research tendency of each area, aspects of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d works of Turkish literature translated into Korean. Then, this paper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lthough researchers are inadequate in both countries, they have made some progress in various fields, while participating in exchange programs. Ever since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igned in 1972, there has been a continual exchange between the two in diverse cultural field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such cultural exchange opportunities were the least effective in the field of literature.

True, a small number of Turkish scholars have presented numerous papers through Korean academic journals. However, we should stop paying attention to only the so-called "international" Turkish authors. We should also move away from obsessing about the Korean War, where the two countries' common history lies, without considering the whole context of the Turkish literary history.

Furthermor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researches of each Korean scholar are heavily concentrated in his or her topic of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es by Korean scholars are also much more concentrated in modern Turkish literature than in pre-modern Turkish literature.

It is expected that symbolism and the theme of cultural integration in Turkish literature will lead the next wave of research trend.

Translation is the main index for measuring the popularity of a country's literature in a foreign country, the accepted standard for checking its rank at the worldly level. This is why this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a list of works of Turkish literature translated into Korean. Doing so, this paper emphasizes that Turkish literature is the only Asian literature (with the exception of China and Japan) that has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number of its translations into Korean. This paper concludes that more funding support is needed for building research infrastructure for studies in Turkish literature, which is growing rapidly towards the center of world literature. Education for the future generation of scholars, publication of introductory books on Turkish literature,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must be supported. I hope this research can serve as an interim report urging the change.

Keywords | Turkish literature, literature in translation, Korean-Turkish relations, cultural exchange

